

제 3 호

1992.3

나눔터



퍼낸날 : 1992년 3월 1일/퍼낸곳 : 한국성폭력상담소(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주소 :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우.137-600)/전화 : 02)522-1042/계간 발행

성폭력 예방을 위한 호신술 특강

2월 29일(토) 16:30 - 17:30



성폭력 예방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기간중 있었던 호신술 특강
(사진제공 : 여성신문)

차 례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2

컬럼...5

인물탐방...6

연재기획 : 강간, 바로 압시다·데이트 강간...7

기획기사 : 아시아 여성들, 성폭력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8

호신술을 배웁시다...12

나눔터 애깃글...13

논단 : 성의 역사 ③...14

지상상담 : 근친강간...15

알림판...16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16

2월 20일 현재 상담 1천5백여건

어린이 성폭행 추방을 위한 한미당 성황리에 마쳐

1991년 11월 23일 계몽문화센터 아트홀에서 11월25일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하고, 어린이 성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어린이 성폭행 추방을 위한 한미당〉을 열었다.

먼저 1부에서는 최영애 본상담소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필화 교수(이대, 여성학)의 ‘실상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어린이 성폭행에 대한 실태와 원인 분석이 있었다. 그뒤 본 상담소 상담원들이 준비한 성폭력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성폭력에 대한 공개토론, 질의 응답으로 1부 순서를 마쳤다. 2부에서는 다섯동이가 흥겨운 노래마당을 벌였으며, 상담소의 상담원과 예비상담원으로 이루어진 연극팀이 성폭력 예방극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서울시경 민원실의 호신술 시범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모두 끝맺었다 *



〈표1〉

상 담 유 형 분 류

〈1991. 12. 31 현재〉

피 해 유 형	가 해 자 분 류		피 해 자			소 계
			성 인	청소년	어린이	
강 간 447 (34.9%)	아 는 사 람 (314)	근 친	11	15	31	57(12.8%)
		친 척	10	8	14	32(7.2%)
		이 윗	19	15	31	65(14.5%)
		선배·친구	22	9		31(6.9%)
		데이트	21	4		25(5.6%)
		직 장	77	1		78(17.4%)
		선생님	3	3	3	9(2.0%)
	기 타		10		7	17(3.8%)
	모르는 사람(133)		56	37	40	133(29.8%)
윤 간 48	(3.8%)		25	22	1	48(3.8%)
강간미수 12 (0.9%)	아는 사람		3	1	1	5(41.7%)
	모르는 사람		6		1	7(58.3%)
혼인빙자간음 52	(4.1%)		52			52(4.1%)
성 추 행 113(8.8%)	아는 사람 (88)	근 친		6	13	19(16.8%)
		친 척	5	3	6	14(12.4%)
		이 윗	5	4	30	39(34.5%)
		선배·친구	1	3	4	8(7.1%)
		직 장	5	3		8(7.1%)
		선생님				
	가해자 미상					2
	모르는 사람		8	6	11	25(22.1%)
재상담 277	(21.7%)		221	23	33	277(21.7%)
기 타 320(25.2%)	성문제		33	1	4	38(11.9%)
	장난전화		16	5		21(6.6%)
	아내 구타 및 의처증		8			8(2.5%)
	법률상담		175	17	3	195(60.9%)
	협박·위협·납치		9			9(2.8%)
	기타		47	2		49(15.3%)
남성피해 5(0.39%)	아는 사람		3		1	4(80.0%)
	모르는 사람				1	1(20.0%)
총 계			854	188	237	1279

어린이 성폭행, 전체의 31.1%

작년 4월13일 개소 이후 1992년 2월 20일 현재 1천5백63건의 상담을 받았다.

〈표1〉의 12월 말까지 상담 통계를 보면, 성폭행이(강간, 윤간, 성추행, 강간미수 재상담 포함) 902건으로 전체 상담의 70.5%를 차지하고 있다. 강간이 495건, 강간미수를 포함한 성추행이 125건, 혼인빙자간음이 52건, 재상담이 277건, 그리고 기타가 320건이다.

이와같은 많은 상담건수도 놀랍지만 각 사례마다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의 상담사례 중 어린이가 성폭행 피해자(강간, 강간미수, 윤간, 성추행) 전체의 31.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그림 1). 특히 근친에 의한 피해가 12.8%를 차지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그림 2)

〈그림 3〉을 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70.2%를 넘고 있다. 이를 통해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한적한 곳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다는 일반적인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귀가시간 규제 등 개인의 몸단속 차원에서의 대책은 너무 미비해 실제적인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동안 상담에 대한 후속활동으로 재상담, 면접상담을 통해 심리적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정신과, 산부인과적인 처치도 자문위원 선생님들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절차 안내 및 담당 검사와 판사에게 진정서를 보내는 등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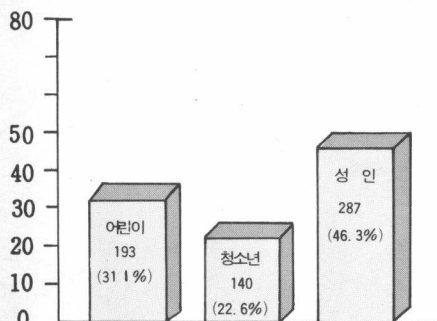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목사(강남교회)가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고소한 사건(고소인 4명, 15명의 진술서 첨부)에 대해 대리고소와 기자회견 등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친강간 피해자로 재판중인 김진희·은희 두 자매와 10년이 넘게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오다 결국 이를 살해한 김보은·김진관 사건 등도 지속상담과 매회 공판의 참관, 진정서제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적절하고 빠른 후속처리와 피해유형 파악 등을 위해 상담사례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담부에서는 보다 좋은 상담을 위해 “상담원 지침서”를 마련하고, 면접상담과 피해여성들로 구성된 그룹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그림 1〉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분류
(강간, 윤간, 성추행, 강간미수)
남성 피해자 제외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 활동 방향 새롭게 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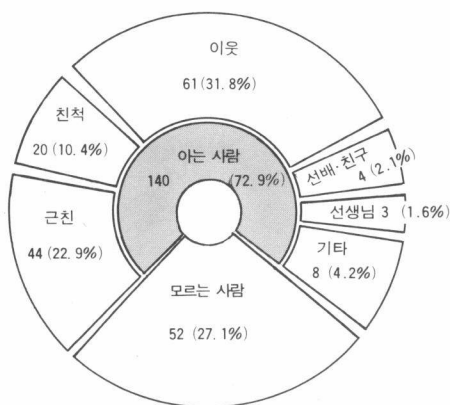
본 상담소를 비롯한 4개 단체로 작년 8월에 결성된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는 성폭력특별법 시안 마련,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당인 초청간담회(9.9), 국회에 청원서 제출(10.31), 성폭력추방주간 선포(11.25-12.10)와 이 기간 중 각 단체별 기념행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추진위는 올해부터는 여성단체연합 산하 특별위원회로 활동하여 뜻을 함께 하는 여러 단체들로 구성 주체를 넓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기로 했다.

지난 1월14일의 새해 첫 모임에서 추진위는 그동안의 활동을 성폭력특별법 마련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부족, 장·단기 목표 설정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앞으로 2회에 걸친 내부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성폭력의 개념규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이번 성폭력 추방 활동 범주에 강간, 성추행, 아내구타, 포르노, 강제된 매매춘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현재 1953년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형법 개정 작업 중임을 감안하고, 절차법상의 문제와 복지시설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을 다시 확인했다.

〈그림 2〉
어린이 성폭행의 가해자 분류



특위 명칭은 종전대로 “성폭력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로 결정했다. 앞으로 성폭력특별법 시안 마련과 이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 공개토론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회 청원활동과 성폭력추방 공동결의대회와 문화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다 *

상담원 ‘자기표현훈련’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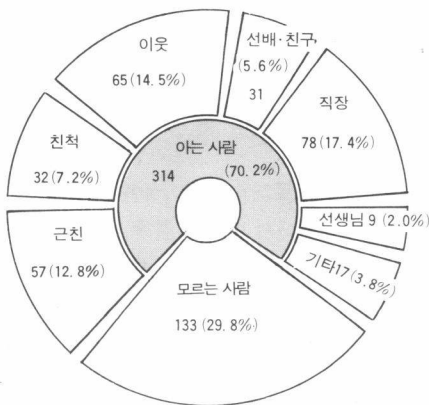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여성단체 상담원들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1991년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자기표현훈련”을 실시하였다.

자기표현훈련이란 있는 그대로의 감정 느낌을 표현하는 것으로 집단상담의 일종이며, 서강대 김경민 교수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훈련 내용은 상담자가 상담에서 걸림돌을 작용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찾는 연습, 내담자의 말 속에서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보다는 내담자와 같은 감정·태도·신념 즉 공감적 반응으로 상담에 임하는 연습 등이었다.

본 상담소에서는 안연선, 장윤경 두 상담원이 참여하였는데 본 상담소 상담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그림 3〉
강간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발기인, 상담원, 자원봉사자 숙박교육

91년 12월 21, 22일 이틀 동안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양평콘도에서 총 23명이 출석한 가운데 '상담소 총 MT'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발기인, 상담원, 자원봉사자들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91년의 반성과, 92년의 계획, 그리고 상담소에 대한 건의 등이 논의되었는데, 상담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평가된다.

'데이트 강간' 내부 세미나 가져

조사연구부(부장: 안연선, 전연희)는 연구작업을 통한 상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2월22일 아직 국내에서는 용어조차 생소한 데이트강간에 관한 내부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담원, 자원봉사자, 발기인, 이대 여성학과 재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는 데이트강간에 대한 개념 정의, 발생요인 및 예방과 대책 등에 관한 발제가 있었다.

정기총회에서, 92년 활동계획 논의

본 상담소는 1992년 1월 11일 오후 2시 정기총회를 열고, '91년 부서별 활동 및 행사를 보고하고, '92년 사업계획 및 중점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아울러 '91년 결산 및 예산을 인준하고, 상담소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스탠포드대학, '아시아 여성연구 프로그램' 참석, '한국의 성폭력 실태' 발표

지난 1991년 11월 30일 본상담소 정경자 총무와 전연희 조사연구부장은 스탠포드대학에서 '여성과 성문제(issue of women and gender)'라는 주제로 개최된 아시아 여성연구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12월16일 돌아왔다.

이 프로그램에는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각 분야에서 여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싱가포르 여성 대표 16명과 타이완 대표 2명, 인도네시아, 홍콩 대표 각 1명씩 모두 22명이 참석했다. 스탠포드대학과 버클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및 타이페이로 연결된 이 프로그

램은 여러 여성운동 단체들을 방문, 실무자들을 만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분과 모임에서는 각 나라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시아여성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들의 정신적 치료와 재교육을 담당하는 남성성폭력극복센터(Men Overcoming Violence Center)의 프로그램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폭행을 범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오클랜드맨즈프로젝트(Oakland Men's Project)에 깊은 감동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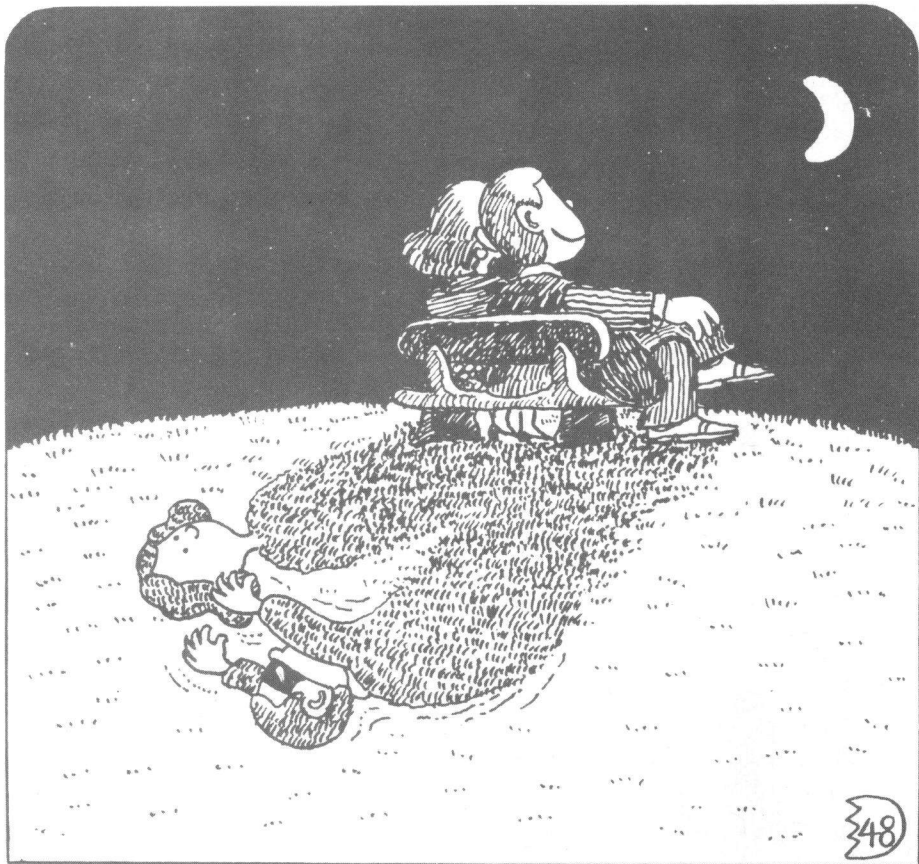
성폭력 예방 기금 마련 바자 호신술, 비디오 상영, 공개토론회 등 함께

본상담소는 성폭력예방운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를 '92년 2월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열었다. 21개 유명브랜드가 내놓은 여성춘추복을 팔

아 얻은 수익금은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 및 예방프로그램을 위해 쓸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화 또는 면접으로 성폭력문제 상담을 받았으며 성폭력을 주제로 한 영화 및 어린이성폭행 예방 비디오를 상영했다. 26일에는 성폭력을 주제로 최영애(본상담소 대표), 박금자(산부인과 의사), 김삼화(변호사), 장필화(이화여대, 여성학), 장영복(한양대, 사회학)을 모시고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밖에도 26일 김지숙씨(연극배우), 27일 오숙희씨(KBS 2TV 「생방송 여성광장」 진행자), 28일, 손숙, 정한용씨(MBC 라디오 「여성시대」 진행자)의 모금마련을 위한 사인회가 있었다. 또 마지막날인 29일에는 인기가수 정훈희씨의 노래마당과 권정주씨(한국택견협회)의 호신술 강좌를 마련,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정훈희씨를 비롯한 이번 바자 참석자들은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기금을 내주었다.



피해여성들에게 도움의 빛이 되길

이 효 재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국 성폭력상담소」가 문을 연 지 벌써 한 해가 되었다니, 그 운영과 실무에 헌신해 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린다. 성폭력의 유형과 그 정도가 잔학해질 뿐 아니라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요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아픔과 고생이 치열할 것으로 멀리서나마 짐작되기 때문이다.

지난 일년동안 신문을 펼칠 때마다 성폭력 사건의 보도가 우리를 경악하게 하며 마음을 아프게 한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피해 여성들의 연령이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반화될 뿐 아니라 이것이 가족내에서 남편으로서 아내에의 폭력만이 아니라, 어린 여아들이 근처에게서 당하는 폭력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실이 더욱 놀라우며 마음 아프다.

요즘 한창 논의되고 있는 독일나치의 잔악상을 능가하는 정신대의 종군위안부 문제는

성폭력의 구조적 성격이 지닌 역사적 뿌리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일제군국주의 만행으로 피해당한 우리 여성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서, 식민지의 군사주의와 가부장적 관료주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장경제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대근로령으로 동원되고 끌려간 우리 여성들은 군수산업의 노예노동자로서, 그리고 일본군인들의 성적 위안부로 식민지의 희생제물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재생산의 모체를 짓밟은 것이다. 그러므로 종군위안부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성폭력인 동시에 민족말살정책 수단으로서의 성폭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성폭력의 성격과 원인규명은 제국주의적 침략성의 가부장적 측면을 바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이 아직까지도 끊이

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제 이 땅에서는 여자들이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울타리와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 한 여자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폭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의 구조적이며 문화적인 문제로서 근본적인 변혁이 없이는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주의와 시장경제의 비인간성으로 이 땅의 여성들의 몸과 마음이 찢기고 생명과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촛불과 같은 도움의 빛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이제는 집을 세우자

최 영 애

본상담소 대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터를 닦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폭력 발생 원인을 몸조심, 문단속 차원에서 바라보며 피해 여성들의 품행이나 부주의를 탓하고 있다. 이러한 풍토 위에서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험을 드러내어 말하게 하고 손상된 자존감과 참담한 절망감을 회복, 치유해 주는 일은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의 상처는 너무나 크고 깊었다. 가장 크게 상처를 입은 것으로서 어린이 성폭행 특히 근처간간의 경우 이들을 지속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책이 필수적임을 절감했다.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 그리고 법·제도적으로 다양한 전략과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실감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는 피해 여성들에게 그들을 위한 터가 마련되었음을 알리는 일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두터운 벽을 허물기 위한 작업에 주력했다. 성폭력은 피해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며 수치심이나 죄책감 혹은 자기비하적 손상감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형성된 잘못된 생각때문이라는 것, 언제까지나 여성들이 피해자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T.V나 신문, 잡지 그리고 특강들을 통한 홍

보활동과 성폭력에 관한 소책자 발간 등을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타 단체와 연대하여 성폭력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성폭력 관련법 조항들과 사법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쟁점화 시키고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활동들과 더불어 1천5백여 피해 여성들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터를 닦았다.

이러한 활동들은 피해여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많은 따뜻한 가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잊지 않고 후원회비를 보내주는 후원회원들과 이사들의 재정적 지원, 시간과 가슴을 나누어 준 자문위원, 상담원,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 터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의 성원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피해여성들과의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스쳐가는 ‘터’로만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올해부터 우리는 보다 많은 피해여성들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한 넓은 터를 닦아가는 작업과 피해여성 그룹상담 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내실을 기하는 한편 피해여성들을 위한 집짓기를 시도해보려 한다.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 집을 짓는 일에 머릿돌을 놓아 줄 많은 이들의 참여를 바란다 ■

정신병원과의 인연을 통해 성폭력의 심각성 느껴

김지숙씨는 대학 졸업후 77년에 연극을 시작, 극단 현대에 입단하였다. 지금까지 8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하였는데, 그 중에 「아가씨와 건달들」, 「뜨거운 바다」, 「로젤」이 대표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공식적인 무대활동 외에도 정신병원에서 싸이코드라마를 했는데, 「로젤」은 그런 경험들이 상당 부분 개입된 작품이다. 「로젤」은 하랄트 뮐러(독일)가 원작자로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무대에 올렸다.

주인공 로젤은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인간적 욕구를 갖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녀의 꿈을 철저히 파괴한다. 권위주의적 아버지, 순종적 어머니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로젤은 대학 진학에 실패하자 타락하게 된다. 로젤은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그 남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강간하고 한낱 성적 파트너로서 그녀를 대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고 떠나 버린다.

이러한 줄거리를 담은 이 작품은 남성문화 내에서 여성이기에 겪는 인간소외를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장기간의 앵콜공연 외에도 김부남대책위에 전 수익금을 기증하기 위해 전주, 광주에서 공연한 바 있고, 앞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 다시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다.

요즘은 연극공연(넌센스) 때문에 바쁜 김지숙씨를 92년 1월 15일 만나 보았다.

연극은 언제부터 했고,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 대학졸업 후부터 시작했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였다.

•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공연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 그것을 고르는 것은 어렵다. 다 소중한 고 기억에 남는다.

• 지금까지 가장 사랑을 받았던 작품은?

— 「아가씨와 건달들」과 「뜨거운 바다」이다.

• 여성문제를 제기한 작품으로 로젤이 상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던데, 어떤 작품인가?

— 정신병원에서 만났던 여자들의 아픔이나 분노를 나타낸 것이다.

• 어떻게 해서 정신병원을 찾게 되었나?

— 연극이 잘 안되던 시기에 정신병원을 찾게 되었다. 처음 갔던 날 싸이코드라마를 인상깊게 보았고 그 이후로 거기에서 계속 싸이코드라마를 함께 했었다. 요즘엔 너무 바빠가지 못해 미안하다.

• 김부남대책위와 관련해 무료 공연을 했는데,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가?

— 그 공연이 김부남씨를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의 눈에 띄어서 같이 하게 되었다. 김부남씨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

• 사회문제와 여성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나?

— 연극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의식을 갖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연극은 ‘조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남’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나와 같은 시대,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에도 눈을 뜨게 되었다.

• 앞으로 로젤 재공연 계획은 없는가?

— 로젤은 사회환원적 레퍼토리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계속 하고 싶다. 현재 계획으로는 3월의 전주공연, 4월의 부산공연이 있는데, 다른 지방에서도 하게 될 것 같다. 서울공연은 아직 계획에는 없으나, 올해 ‘성폭력 추방의 해’를 맞아 기념공연을 해볼까 생각중이다.

•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이나 연극이 있는가?

—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다만 진솔하게 작품을 대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말없이 많은 감정과 언어를 표현하는 「백치 아다다」(계용묵작)를 무대에 올리고 싶다.



• 올해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은?

— 정신병자를 위한 재할쎄타를 만들고 싶고, 싸이코드라마 했던 것을 책으로 내고 싶다. 그리고 김부남씨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정신병원과의 인연을 통해서 성폭력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꼈고 우리사회의 교육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지를 보았다는 김지숙씨는 그런 경험들 때문인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를 갖고 있었다.

앞으로 자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며, 다시 한번 「성폭력 상담소」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자신의 말처럼 ‘좋은 동반자’로서 김지숙씨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정리 : 백은주

데이트 강간

안 연 선

창원대 여성학

데이트 강간(Date Rape)이란

데이트 강간은 현재 두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첫째, 보다 넓은 의미로 데이트 강간은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을 뜻한다. 즉 데이트 강간을 acquaintance rape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둘째, 보다 좁은 의미로 데이트 강간은 이성간의 데이트에서 일어나는 강간을 뜻한다. 여기서 ‘이성간의 데이트(heterosexual date)’란 이성과 계획된 만남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성과 함께 극장에 가거나, 야구장에 가거나, 파티에 가거나, 점심을 함께 하기 위한 만남 등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브로셔에 의하면 데이트 강간이란 ‘데이트 중 친구 혹은 아는 사람의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적인 행동(sexual acts)’이다. 예를 들면 첫째, 상대를 정복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 협박 등을 사용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둘째, 육체적으로 무력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즉 의식불명이거나, 잠자는 상태이거나, 술취해 있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성적인 행동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신체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셋째, 나중에 해를 입히겠다고 파트너를 협박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성행위를 요구할 때까지 그러한 위협을 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 강간이란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acquaintance rape)의 한 형태로서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 언어적 혹은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강제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일반 강간의 개념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없다.

코스(Mary P. Koss)는 데이트 강간을 걸로 보기에 성적인 친밀감(sexual intimacy)이 있을 수 있는 사이에서 남성이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sexual intercourse)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데이트 강간을 막기위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

1.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하는 태도를 갖는다.
2.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르고 호신술을 익혀둔다.
3. 데이트 상대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남자는 피하도록 한다.
 - 당신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남자
 - 당신의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려는 남자
 - 여성일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남자
 -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하거나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적인 남자
 - 술이나 약물을 지나치게 복용하거나, 그랬을 때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남자.
4. 상대를 잘 모르거나 친밀한 관계가 될 마음이 없을 때에는 그의 집에 가거나 그를 당신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
5.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곳에 가서 데이트하지 않는다.
6. 첫 데이트 때는 상대의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7. 성관계를 갖겠다는 결정없이 함께 숙박업소의 방을 이용하지 않는다.
8.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서 성관계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데이트 강간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

1.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아니오’는 거부 표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성교 뿐 아니라 키스, 애무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전에 상대방이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진 사이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당신과 당신 파트너의 욕구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
3. 압전히 있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4. 당신이나, 당신 파트너 둘 중 누구라도 술에 취했거나 마약 등을 복용했을 때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
5. 다른 남자들이 성차별적 농담을 하거나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 또는 여성을 이용하거나 학대할 때 이의를 제기한다.
6. 자신이 경험한 강간과 유사한 성관계의 횟수와 성경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남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7. 남성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무신경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해 내지 못하는 기존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8. 강간을 정당화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다. 많은 남자들이 특별한 상황 - 피해자가 술취한 경우, 야한 옷차림을 한 경우, 성적인 농담을 잘하는 경우 - 에서의 강간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어느것도 강간을 합리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9.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성적인 행위를 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못한다. 비싼 식사대접, 성적 흥분, 농도 짙은 애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성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권위에 대한 복종이나 혹은 무엇에 대한 보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 데이트 상대방으로 관심이 없는 여성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많은 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성들이 남녀관계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 남성들과도 충분한 우정을 나눈다. 대개 남성들은 성적인 이야기는 농담으로나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적 경험, 기대,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 맛본 좌절감 등에 대해 다른 남성들과 충분히 토의한다.
12. 강간의 실상과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해서 가능한 많이 알아둔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당신 파트너의 욕구나, 다른 사람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13. 학교나 지역사회에 있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친구들에게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한다 ■

아시아 여성들, 성폭력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20세기의 마지막 25년동안 전 세계적으로 여성 지위 향상운동의 쟁점은 성폭력 추방에 모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근대 이후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 평등한 고용과 모성보호 쟁취 운동,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 평가와 주부의 재산권 인정 등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여성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제협약으로도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여성에게 아직 철저히 피해처지지 않은 가장 뿌리깊은 역사를 가진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신화와 법체계와 사회적 관습의 울타리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여성의 성과 인권을 유린해 온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그 역사가 길고 해악이 엄청난 만큼, 전 세계에 걸친 여성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끈질긴 운동에 의해서만 극복될 것이며, 현대 여성운동이 가장 커다란 연대의 마당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아시아 각국 - 필리핀, 대만, 홍콩의 성폭력 실태 및 그 대처방안을 알아보았다.

필리핀, 성폭력 특별법 제정추진

성폭력 추방을 위해 법적인 장애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각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 특별법 제정추진위'가 결성되어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전개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폭력 특별법을 성폭력 추방의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장치로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 글은 필리핀 여성법률사무국이 의회에 청원된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글이다. 필리핀 여성법률사무국은 여성을 위한 법적 봉사, 법률교육, 정책 비판들을 통해 여성의 이익을 도모해 온 여성운동단체이다. 여성법률사무국의 의견서에는 강간과 성추행의 새로운 규정과 법적용 범위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 보장등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논의와 대책이 있어, 성폭력 특별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에게 보탬이 될 것이다.

이 개정안은 강간특별법을 제정, 강간을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로(A Crime Against Persons) 재규정하며, 강간범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타 목적을 위한 법령이다. 이것

은 강간을 정조에 관한 범죄(A Crime Against Chastity)에서 신체와 생명에 관한 범죄(A Crime Against Persons)로 재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물건이나 도구를 성기나 항문 내에 삽입하는 것을 강간으로 보고, 또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강간 행위도 인정한다.

그리고 현행법에 규정된 증빙요건을 수정하고 있는데 성교와 같은 행동에 대항해서 또는 여성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항해서 말이나 몸으로 저항을 했을 경우, 그 저항의 수준과 형식에 관계없이 그 저항을 동의의 결여(Lack of Consent)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강간위기 센터를 건립하고, '강간 사법관리 위원회(Gender Sensitivity And Legal Management of Rape)'의 법 집행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강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강간소송의 처리를 신속히 하고 필리핀 육군, 국회의원 또는 정부관료가 강간죄로 고발된 경우, 그들의 활동을 정지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에는 청원안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강간은 정조에 관한 범죄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다.

현행법상 강간의 정의에 피해자가 독신자 또는 처녀이거나 순결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은 없다. 현행법에서는 강간을 단지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거나, 여성이 의식을 잃었거나, 12세 이하일 경우, 여성의 의지에 반하는 성교를 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정조는 범행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리핀 대법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단정하지 못한 행실이 강간 범죄를 정당화해 줄 수 없음을 판결해 왔다. 강간은 여성의 정조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살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므로,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로 분류해야 한다. 강간은 어떠한 육체적인 상해보다도 피해자 개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강간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로 이전되면, 더 이상 친고죄로 적용되지 않게 된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자신, 그녀의 부모, 조부모, 또는 보호자가 적절한 절차로 고소해야 한다는 제한 조항(친고죄)의 효력은 소멸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 조부모, 보호자가 언어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와 결혼하는 등의 행위가 죄의 법적인 처벌을 막거나, 계류 중인 범죄 소송을 소멸시키거나, 선고된 형을 경감할 수 없다.

2. 강간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사람을 위협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행동으로, 성교를 하지 않고도 저지를 수 있다.

현행법규에서 강간은 ‘무력이나 협박을 사용하거나, 여성이 실신하거나, 무의식상태일 때, 또는 이상 두가지 상황이 성립하지 않아도, 여성이 12세 이하일 때 여성과 성교를 가지는 것(Having Carnal Knowledge)’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성교를 남성과 여성이 육체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므로, 성기 이외의 다른 물체를 사용하거나, 질 이외의 신체의 다른 부위에 삽입하는 변태적인 성폭력은 처벌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관에 음경 삽입이 강간의 유일한 징후는 아니며, 사람들은 성기관만이 아니라, 도구나 물체의 사용으로 성추행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그러한 추행은 여성의 성기관이 아니라, 입 또는 항문에 음경으로 위협함으로써 행해지기도 한다. 그러한 행위가 강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를 묵인하고, 가해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청원안에서 강간의 정의에 나타난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성추행에 관한 필수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한다. 성추행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추행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만족을 위해 타인의 입과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기와 항문에 도구나 물체를 삽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다음 상황을 그 조건으로 한다.

1. 무력, 위협, 또는 협박을 사용함으로써
2. 정신을 잃거나 무의식 상태 일때
3. 1과 2의 상황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12세 이하일 때

이 조항은 그러한 삽입이 의학적으로 승인된 진료나 치료 행위를 위해 수행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수 조항의 제안은 청원안에 명시된 강간 규정의 모순을 해결하고, 법 적용범위를 이성 간에 혹은 동성 간에 행해지는 모든 성추행으로 확대한다.

3. 아내는 남편에 의해 강간당한다.

청원안에 따르면, “성교가 이상의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범죄의 책임을 부인하지는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상황”이란 무력, 위협, 또는 협박을 사용하거나, 여성의 성기나 항문에 도구나 물체를 삽입하는 것, 또는 여성이 정신을 잃거나 무의식 상태 일 때를 말한다.

법에서 강간은 주로 아내 이외의 여성에게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에서 확실한 판결을 내린 적은 없지만, 아내와 남편 간에는 성행위가 폭력적이고, 혐오스럽고, 왜곡된 것이라 할지라도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원칙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 별거했을 때에만 남편의 유죄가 성립한다. 법적인 별거 판결로 배우자에게 법에 따라 헤어져 살 권리가 주어졌으므로, (그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주거와 침대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강간이 성립된다. 그러나 단순한 별거의 경우에 아내에게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한 남편에게 강간을 적용하기에는 법적 기초가 부실하다. 강간의 통념은 그것이 결혼 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제하므로, 결혼 내의 모든 성관계는 합법적이다. 이러한 통념에는 결혼계약을 성관계를 위한 절대적인 계약으로 여기는 전통적인 시각이 깔려 있다.

부부는 서로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포함하는 배우자권을 가지는데, 이는 아내의 의지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배우자권은 양쪽 상호 동의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아내의 거절은 배우자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배우자권을 내세워 아내를 강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법원도 아내가 남편의 성적요구에 복종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법이 배우자권의 존재를 인정할지라도, 그 권리가 여성의 자유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절하는 행위는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성추행죄에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결혼 관계는 성추행죄의 적용에 법적인 장애가 되지 못한다.”

4. 구두 거부나 육체적 저항은 정도에 관계없이 동의를 결여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간주한다.

로즈마리 텅은 “법은 피해자가 불굴의 저항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성교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적용되었다.”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필리핀의 사법권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초기 재판이 요구한 피해자의 저항 정도는 엄격했다. “구두 거부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신을 다한 육체적 저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인 소송에서, 딸에 대한 아버지의 압도적인 도덕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강간의 증거로 저항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의 기준에 대해 로즈마리 텅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어쩔수 없는 유혹자로 또는 선도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여겨져왔으므로, 의심 많은 경찰, 검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가해자에게 저항했을 경우를 더 선호한다. 이러한 저항 방법은 여성에게 너무 위협하다. 저항이 강간자를 다루는데 항상 최상의 전략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저항으로 강간이 야만적인 학대나 구타 심지어는 살인으로 변할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일반 여성에게 특히 강간 피해 여성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법에 내재한 여성혐오적인 상을 제거해야 한다.”

청원안은 여성이 강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부담을 줄이고, 폭력이나 협박의 조건을 완화한다. 어떤 형태의 성교시에도 여성이 자신의 의지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정도에 관계없이 구두 거부나 육체적인 저항이 반증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면,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로 본다.

위 안은 강간위기센터의 설립 등 강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센터의 유지비도 설립보장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그리고 법 시행자가 강간 소송의 기소를 신속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군인이나 국회의원 또는 정부관료가 강간혐의로 고발된 경우, 피해자를 모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로 ‘정직(停職)’을 명하고 있다 9

정리 : 신미정

홍콩의 성폭력 추방 운동 여러 단 체 연대하여, '90년 본격적으로 시작

홍콩에서 성폭력 추방운동은 여성운동 단체(The Hong Kong Council of Women-Women's Center), 가족계획협회, YWCA 그리고 청소년 협회를 중심으로 199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며, 피해 어린이·여성들에게 봉사하고, 강간문제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협력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전화상담, 홍보활동, 그리고 전문가 회의 등이 있다. 전화상담서비스는 1990년 6월부터 광둥어와 영어로 개설되었으며, 내담자에게 강간의 후유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알려주고, 강간피해자에게 필요한 봉사를 실시해왔다. 그해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2천 9백 95건의 상담이 진행되어 높은 호응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강간문제를 다룬 교육용 소책자 5천부와 자료 등을 제작하여, 일반 시민에게 배포하였고, 다양한 선전물(구호가 적힌 벽보나 책갈피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의 성과로 1991년 9월 강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임상심리학자, 사회복지사업가, 상담원, 법의학자, 법률가, 여성 경찰 등을 비롯한 2백여명의 각 분야 전문인사가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들 가운데,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강간의 본질과 현 실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강간사건의 신고율 10%~50%

홍콩법은 강간을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강간을 강간 당시 성기 삽입의 범위나 사정 여부에 관계없이, 남성이 여성의 의지에 반하여 성교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간은 여성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이며, 강간에 대한 공포는 여성들의 행동의 자유마저 구속하고 있다.

홍콩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은 수치로 여겨지므로 금기시된다. 이러한 이유로 강간은 발생률에 비해 신고율이 아주 낮아, 가장 많이 은폐되는 범죄로 꼽힌다. 홍콩가족협회의 최근 통계를 보면, 상담 전화를 이용한 내담자 가운데 약 50%만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범죄연구의 한 결과에서도 강간사건의 신고율이 약 10%에서 50%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강간의 실제 발생건수는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강간 사건의 낮은 신고율은 피해자 대부분이 증거부족과 법적인 절차상에서 겪을 고통과 실제 범죄자가 체포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결과를 우려하는데서 비롯된다.

강간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신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간 피해자와 강간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갖가지 통념이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강간하는 남자는 성에 굶주려 있다' '여성들 중 대다수가 강간당하기를 은근히 원한다' '건강한 여성은 노력하면, 강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등이 있다. 그리고 강간을 조장하는 원인으로는 음란서적이나 여성의 옷차림이나 문분별한 행동 또는 가정교육상의 문제 등이 지적되는데, 이러한 통념과 견해는 남성의 폭력적 행동에는 비판의 초점을 두지 않는다. 피해여성들조차도 대다수가 강간의 원인을 남성의 성적인 결핍증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강간에 대한 통념의 무비판적 수용은 강간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강간을 당한 피해여성은 육체적인 상처를 입을 뿐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그 이후의 삶에서 행복을 잃어버릴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는다. 피해자가 강간 후유증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의지와 노력과 더불어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간 피해자를 즉시 치료하고, 장기간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사회적인 구조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홍콩 가족계획 협회가 발표한 홍콩 가족계획 협회에 1990년 1월에서 12월까지 접수된 총 95건 중 56건만이 경찰에 신고되었다. (표1 참조) 이전에는 강간에 관한 자료가 낮은 신고율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유 등으로 불충분했다. 그러나 홍콩 가족계획협회가 1977년부터 활동을 수행한 이후로, 강간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어 피해자를 위해 보다 적절한 봉사를 제공할 수 있었다.

(표1)

강간 형태	상담 건수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34
폭력을 사용한 강간	28
약물 강간	11
동성 강간	6
외설행위	4
집단 강간	4
강간 미수	3
근친 강간	3
기타	2
총계	95

(홍콩가족계획협회 발표)

(표1)에 분류된 바와 같이, 강간을 성격에 따라 아홉가지로 나누었는데, 각 항목에 해당하는 건수는 해마다 변하지만, 요즘 두드러진 현상으로 폭력을 사용한 강간에 비해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강간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통념이 그릇된 생각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강간 신고율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러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강간에 대한 신화가 벗겨지고, 많은 피해 여성들이 필요한 도움을 얻고 있다.

정리: 장윤경

대만 강간위기센터 ‘현대여성기금’에 대하여

오늘날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성폭력범죄는 어느 나라에서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만의 경찰 보고에 의하면 1982년 3백 71건에서 1987년엔 8백 7건으로 두배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공식 보고 건수 중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 성폭행은 전체 강간피해자의 2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단체에 의하면 실제로 성폭행이 발생하는 수는 강간 후 살인한 사건을 포함하지 않고도 매년 보고된 건수의 10배인 6천여 건 이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대만도 점차 증가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서 1987년 2월에 시의원인 번유강(潘維剛)과 몇몇 뜻있는 여성들이 모여서 강간위기센터인 현대여성기금(Modern Women's Foundation)을 설립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여성의 안전(Security), 존엄(Dignity), 자유(Freedom) 그리고 발전(Development)을 위하여 실질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실천하고자 모였다. 특히 ‘도움을 주는 손, 천사 같은 마음(A Helping

Hand & A Heart of an Angel)’이라는 모토로 위기에 빠진 여성을 도와(救人苦難)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給人決樂) 목적으로 절망, 고통, 두려움에 빠진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의지력을 길러주어 자신의 현실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센터는 자원봉사자들과 학자들, 신경정신과, 산부인과 의사들, 그리고 법률가와 경찰계, 병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의 주요 활동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상담활동으로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날짜별로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를 연결시키고 있다. 둘째는 가딩 엔젤(Guarding Angel)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피해자가 병원, 경찰, 검찰에 갈 때 동행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상담이 들어오면 먼저 임신 여부, 성병감염 여부 그리고 고소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병원에 피해자와 함께 동행한다.

대만도 거의 모든 의사들이 법정에 출두하

기를 꺼리기 때문에 진단서를 잘 발급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센터는 타이페이의 몇몇 병원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성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 하길 원하면,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동행한다. 대체로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 가해자, 가해자의 가족들 그리고 검사, 심지어는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도 심한 모욕을 당한다. 그래서 이 센터는 여행사나 여검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투쟁 기간이 길고 지루하며 가혹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들에게 고소하라고 권유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세째로 이 센터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이들은 소책자를 발간하여 여성들에게 위험한 경우에 간단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 센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세계 모든 여성단체가 그렇듯이 재정과 인력난을 들 수 있다. 이 센터는 전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직 자원봉사자들과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정리 : 전연희

제2기 상담원 예비 여성학 공개강좌 안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본 상담소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2기 여성학 공개강좌를 실시합니다. 여성학 교육 후,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활동과·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상담원 교육을 받는 분은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성문제, 특히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제목 : 상담소 활동을 위한 제2기 여성학 공개 강좌
2. 대상 : 주부 및 일반 여성, 선착순 50명 대상
3. 기간 : 1992.3.17-5.12(8주)
4. 시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0:30-오후 3:30
5. 장소 : 본 상담소 교육관
6. 수강료 : 5만원
7. 문의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전화번호 : 522-1042)

강 의 안

날 짜	오전(10:30-12:30)	오후(1:30-3:30)
1 주	여성, 어떻게 살아왔나? (최영애 : 본 상담소 대표)	여성문제란? (박혜란 : 이대 여성학)
2 주	남성다움, 여성다움 (오숙희 : KBS '여성광장 진행자')	토론-나의 성장 과정 (장영복 : 한양대 사회학)
3 주	남성 문화 (김효선 : 여성신문사 차장)	사례-남성의 삶 (김찬호 : 연대 인류학)
4 주	여성과 가족관계 (김정희 : 서강대 여성학)	사례-조종신 (본 상담소 상담원)
5 주	여성이 하는 일 (조순경 : 이대 여성학)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여성 (조성숙 : 한겨레신문논설위원)
6 주	우리 사회의 성문제 (이명선 : 덕성여대 여성학)	외국의 여성문제와 매춘 (고미리암 수녀)
7 주	성폭력 피해 여성의 바른 이해 (이미경 : 본 상담소 총무)	여성단체와 여성운동 (한명숙 : 여성민우회 회장)
8 주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도전과 선택 (최영애)	뒷풀이

방어의 시작은 소리치는 것으로부터

성폭력은 여성에게 있어 뜻하지 않은 재난이다. 불시에 성폭력을 당하면 피해는 전적으로 여성에게 귀착되므로, 스스로 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해자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고 저항을 포기하거나 지레 체념하는 것은 금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모면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여성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최고 무기중의 하나는 목소리이다.

소리를 지르는 일은 여성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며, 소리를 지름으로써 공포와 두려움을 변화시켜 스스로를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가해자를 혼란시키고, 당황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므로, 운이 좋으면 가해자가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주목을 끄는 방법이 되므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 그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다. 또한 무술시험에서 기합을 넣으면 더 강한 힘이 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신체적 기술을 함께 사용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장할만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로부터의 비명이 아니라, 배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분노와 힘의 표현 즉 외침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배로부터 효과적인 소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손을 배 위에 얹고 복식호흡을 한다. 힘있게 숨을 내쉴 때 배가 수축함을 느껴야 한다. 이 작업은 별로 쉽지 않으므로 많은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몇차례 복식호흡을 해본 후 손을 치우고 다시 시도하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의 느낌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숨을 쉬면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 본다. 이때에는 고음보다는 낮고 깊은 소리가 나야 하며, 점차 소리를 크고 강하게 낼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한다. 그리고 소리지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야만 신체적 기술과 소리 지르는 것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남성의 몸 중 취약한 부분 알아야

이번에는 남성의 몸 중에서 공격에 취약한 부위를 소개하겠다. 이러한 부위는 유사시 좋은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남성들의 신체약점 부위는 눈, 코, 귀, 목, 허리, 무릎, 정강이, 복부, 사타구니, 발 등이다.

눈은 민감하기 때문에 강하게 눈을 치면 잠시 눈이 안보이게 된다. 코도 약한 부위이므로 코뼈의 탈구가 가능하고 또한 콧등의 날카로운 강타도 잠시 눈이 혼미해지고, 눈물이 나게 된다. 그리고 목구멍을 재빠르게 치면 잠시 숨쉬는데 곤란을 줄 수도 있다. 무릎은 한쪽 방향으로만 구부러지기 때문에 안쪽에서 강하게 치면 부러지거나 무릎뼈가 탈구된다. 그리고 남성의 신체에서 가장 약한 부위는 사타구니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환이다. 이곳을 맞으면 거의 힘을 못쓰게 된다.

유사시에 이러한 약점 부위에 타격을 가하면 잠시동안이라도 가해자가 힘을 못쓰게 되므로 그 틈을 이용해 다시 공격하거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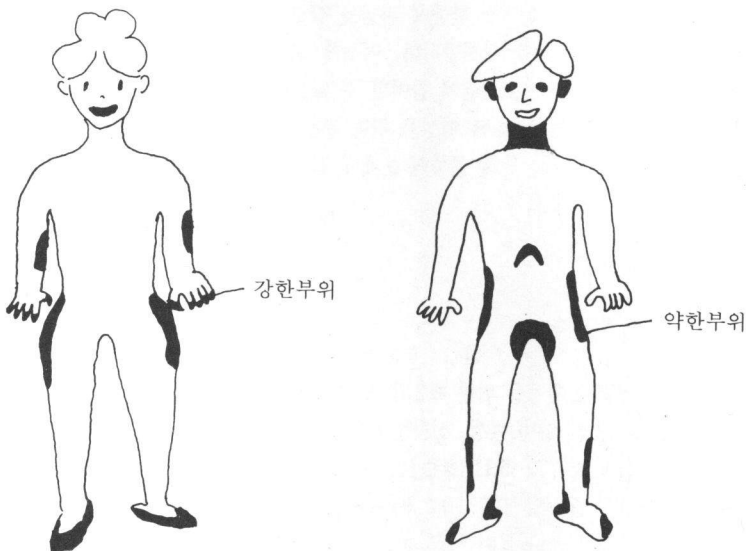
망치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귀, 턱, 관자놀이, 정강이, 아킬레스건 등도 약점 부위이다.

위급시 주위의 모든 사물을 이용하라.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 무기외에도 주위의 모든 사물이 무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책, 시장바구니, 전화, 빗, 가위, 심지어는 연필까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물들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약점부위를 공격한다면 효과적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또한 핸드백을 이용하여 얼굴을 치거나, 끼고 있는 알반지를 이용해 상대의 손등을 힘껏 눌러줄 수도 있고, 손목시계로 눈부위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이힐을 신고 있다면 그 뒤축으로 힘껏 상대방의 발을 밟아주는 것도 효과가 크다.

여성의 힘이 약하다고 해서 결코 그 상황을 체념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되며,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리 : 김영아



그림(1), 신체에서 여성들의 강한부위와 남성들의 약한부위

어떤 오해

최 현 경

방송작가

콩나물 시루도 아침 출근길의 전동차 만큼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좀 더 큰 탓에 재영이 고개를 빼고 이리저리 둘러보니 아닌게 아니라 사람들 머리로 가득찬 전동차안이 새까만 들판같다.

손잡이에 간신히 몸을 의지한 재영의 머리 속으로 언젠가 본 ‘지구 는 만원이다’라는 표제 아래 지구에 사람들이 뽁뽁하게 안간힘 쓰고 매달린 그림이 생각났다.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앞사람의 발까지 붙잡고 늘어진 그 그림속의 사람과 지금 자신의 신체와 조금도 다를게 없어서 쓴 웃음을 삼키는데 재영의 바로 앞쪽에 선 젊은 여자가 이리저리 몸을 빼며 짜증을 냈다. 재영은 아차 싶어 그 여자에게서 떨어지려 몸을 비비적거려 보지만 아침에 마신 우유 한잔까지도 올라올 정도로 앞뒤 양옆에서 사정없이 조여오는데는 도리없었다.

여자가 노골적으로 짜증스런 탄식을 뱉어내며 획 돌아보며 재영을 쏘아보는데 재영의 얼굴이 확 달아 올랐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음흉한 눈이라고 눈총을 주는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이를 악물고 여자에게 몸을 닿지 않도록 전전공공하며 어서 전동차가 목적지에 닿기만을 빌었다.

앞의 여자는 오늘 하루종일 불쾌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건 재영 역시 마찬가지다. 재영의 친구 중에는 복잡한 전동차에서 여자와 밀착되는 걸 은근히 즐긴다고 하지만 생판 모르는 여자로부터 치한으로 오해받는다라는 것은 찜찜한 일이다.

복잡한 퇴근 시간을 피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나서는 데 같은 과의 미진이 타쁘게 따라 나선다.

“늦었구나”

“(걱정스레) 내일까지 제출해야 될 교양과목 리포트가 있어.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

“가자, 내가 바래다 줄게”

걱정하는 게 안돼보여서 재영은 경호원을 자청했다.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미진에 대해서 새로운 면도 알게 되었다. 괜한 시간 낭비만은 아닌 것 같아 재영은 기분이 좋았다. 미진의 집 골목 입구에 미진의 어머니가 나와 계셨다. 무사히 임무를 마친 기분으로 돌아서는데 골목안으로 사라지면서 미진을 야단치는 미진어머니의 목소리가 재영의 귀에까지 들렸다.

“아무 남자나 믿고 냉큼 따라나서지마, 재를 어떻게 믿니? 겁도 없이”

재영은 절로 쓴 웃음이 나왔다. 그래, 무서운 세상이지. 재영은 이해하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다.

늦은 시간이라 버스는 한산했다. 재영은 어떤 여자 뒤를 따라 버스에서 내렸다. 어두운 골목엔 여자와 재영 두사람 뿐이었다. 여자의 하이힐 소리와 재영의 발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골목안을 맴돌고 있었다. 여자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그래도 재영의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자꾸 빨라지는 여자의 발걸음을 보면서 재영은 웬지 예감이 좋지 않았다. 마침내 여자가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리쳤다.

“엄마! 사람 살려요, 엄마아!”

갑자기 골목안 창문이 열리고 여자가 황급하게 두드린 대문에서 덩지가 큰 남자가 뛰쳐 나왔다.

덩지 큰 남자가 재영의 먹살을 쥐려는 순간, 엉겁결에 재영은 소리쳤다.

“아니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난 치한이 아니라고요. 우,우,우리집은 저쪽입니다.”■

“

어두운 골목엔 여자와 재영 두사람 뿐이었다. 여자의 하이힐 소리와 재영의 발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골목안을 맴돌고 있었다. 여자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그래도 재영의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자꾸 빨라지는 여자의 발걸음을 보면서 재영은 웬지 예감이 좋지 않았다. 마침내 여자가 뛰기 시작했다.

”

여신시대를 찾아서

김 정 희

서강대 여성학

여자와 남자의 상징물이 처음 출현한 것은 후기 구석기인 BC 2만 5천년에서 BC 1만 5천년 전 경이다. 유럽의 동굴과 나일강의 진흙더미에서 발견되는 이 상징물들은 돌이나 상아로 만든 것으로서 여성상은 유방, 허벅지, 음문을 과장·확대하고 있으며 남성 상징인 남근은 후기 구석기 말기에 올수록 기물(器物)에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 남부, 체코와 이라크 일대에서는 BC 1만 2천년의 것인 붉은색의 의례적 매장이 발견된다. 유럽 남동부의 약 3천 군데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신석기(BC 1만년 경 시작)와 청동기시대의 소형 여성 조각품이 3만여점이나 발굴되고 있다. 제리코(Jerico :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를 말함)에서는 여신숭배를 보다 확실히 말해주는 BC 7천년 경의 여신조(女神廟)가 발굴되었다.

터키의 카탈 휴크(Catal Hüyük)에서는 40개 이상의 여신조가 발굴되었다. 이들 여신조에는 처녀, 어머니, 할머니의 다양한 세대의 여성상이 있는데, 두 다리를 벌린채 아이를 낳고 있는 임신부상도 모셔져 있다. 역시 터키의 하킬라(Hacilar)에는 BC 5천년 경의 여신의 성교상이 발굴되었고 BC 4천년 때의 수메르의 여신조에는 ‘하늘의 여왕’(Queen of Heaven)이라는 뜻의 문자가 새겨져 있다. BC 3천년의 여신조, 여신조각, 또는 기록은 세계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여신숭배는 기원 후까지 계속되어 AD. 5세기에 기독교도 황제가 마지막 남은 여신숭배를 탄압할 때까지 유럽에서 존속하였다.

여신숭배 흔적 세계 모든 곳에서 발견

동양에서는 몇 년 전에 중국 요녕성에서 BC 3천년경의 여신조와 임신부 형상의 여신상이 발견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시조(始祖)의 어머니가 호국신의 성격을 띤 여신으로 숭배되었다. 고구려는 10월의 동맹 제천행사시 동명성왕의 어머니인 유희의 신묘에 제사를 지냈고, 백제 시조 온조왕의 어머니인 서소노도 사후 국모로 제사되었다.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와 알영 부부는 서술산의 산신인 서술신모(西述神母)에게서 태어났다고 전하는데, 이 서술신모의 제사는 신라가 거행하는 세 가지 큰 제사 중의

하나였다. 이외에도 우리는 「삼국유사」에서 영취산의 산주(山主)인 변재천녀(辯才天女), 김유신을 고구려 협객에게서 구해 준 세 여신 등을 볼 수 있다.

BC 3,4천년 전이 되면 여신 숭배의 문자 기록을 볼 수 있다. 그 중 바빌론에서 숭배되었던 이스타(Ishtar) 여신에 대한 기도문을 한번 보기로 하자.

우주를 지배하시며,
인류를 창조하시고
가축들의 앞을 거니시고 목동을 사랑하시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이스타 여신이시여.....
당신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정의
를 행하시오니, 당신이 정의입니다.
당신없이 우리의 생명에 가져다 주는
강은 더이상 흐르지 않으리.....
자비의 이스타 여신이시여.....
나의 기도를 귀기울여 들으시고 자비를 내
려 주소서.

마치 주기도문을 연상시키는 이 기도문은 당시의 여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신은 바다, 물, 알로 상징화

여신숭배는 대체로 여신이 신 중의 신으로 군림하는 유형, 여신이 여전히 최고의 신이나 여신의 창조과정에 남성의 참여가 드러나는 유형, 마지막으로 로마신화에서처럼 최고신은 남신이 되고 여신은 힘 없는 신이 되는 유형의 셋으로 구분된다. 첫번째 유형의 여신숭배는 BC 4천년 경의 중동 지역의 고고학 유적, 유물과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염소, 뱀, 새를 동반하는 여신 모습이 기둥·나무에 새겨지고 있다. 이집트의 대모신 넌(Nun)은 원시바다로 이 여신은 우주의 나머지 것들을 창조하는 태양신 아툼(Atum)을 낳은 것으로 되어있다. 수메르의 대모신 남무(Nammu)여신은 남신인 하늘신 안(An)과 여신인 땅신 키(Ki)를 낳았다. 그리스의 여신 가이아(Gaia)는 대지(大地)신인데 처

녀 잉태로 하늘신 우라노스(Uranos)와 인간을 창조하였다. 아시리아와 폴리네시아의 대모신은 세계를 단 한번에 창조한 알(world egg)을 낳았고, 인도의 말타-데비신(Malta-Devi)은 유방에서 인류를 위한 젖을 분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런 예들에서 보듯이 여신은 새 생명을 창조하는 자연속의 원시적 힘으로서의 바다, 물, 알로 상징화된다.

이같이 여신이 숭상되었던 데에는 다음의 두가지 요인이 관련된다. 첫째는 음력(달)의 한 달 주기와 일치하는 규칙적인 월경과, 둘째는 여성이 출산과 원시농경을 통해 인간과 식물의 생명생산을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즉 여신의 신비화는 여성의 활동(출산과 농사)에 대한 신비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는 원시부족에서 남성의 고통스러운 성인식이 실은 여성의 출산(의 고통)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예를 들면 호주의 아란다(Aranda)부족에서는 남자 무당이 성인식을 치루어야 할 소년의 성기를 잡고 가느다란 긴 뼈를 요도로 집어넣고 부싯돌 조각으로 성기가 통통 붓도록 상처를 입힌다. 이 고통스런 성인식이 바로 여성의 출산 고통의 흉내라는 것은 성인식을 거친 소년들에게 부여되는 명예호칭이 “음문을 가진 자”라는 것으로 드러난다.

다음으로 여전히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대모신이지만 대모신의 남자 동반자가 여신의 출산 의례를 돕는 자로 출현하는 여신숭배 유형은 BC 3,4천년 전의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가나안, 에게해 지역의 의례와 신화에서 발견된다. 여신의 동반자는 반드시 배우자는 아니고 아들이나 남자형제도 된다. 이 남자 동반자는 대모신과의 성교를 통해 출산의례를 돕고 나서 부활을 위해 죽임을 당한다. 여신과 젊은 남성의 성혼(聖婚)의례가 그것으로 이는 BC 3,4천년 경에 지구 곳곳에서 거행되던 성대한 의례였다. 이 의례는 후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세 의례’로 바뀌어 행해졌다. 러너는 이같은 신화는 남성이 가축을 사육하게되면서 수컷이 없으면 암컷이 수태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어머니의 역할과 태도가 중요

— 근친강간 —

문 저는 올해 48세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16세)을 데리고 현재의 남편과 재혼하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딸려있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저는 줄곧 과출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성격이 활발했던 딸아이가 3-4년 전부터 신경질적이고 내성적인 아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엄마는 새아빠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사춘기에 나타나는 변화나 호기심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달 전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부부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남편과 딸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딸은 “말을 듣지 않거나 누구에게든 이 사실을 얘기하면 우리 가족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당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열떨결에 그러한 딸에게 “그래도 그렇지 멍청하게 가만히 당하고 있었느냐?”고 야단을 쳤지만, 결국 제남편의 그러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일반적으로 아버지, 외붓아버지, 삼촌, (사촌)오빠, 고모부 등 친인척에 의한 강간을 근친강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근친강간은 공동거주나 빈번한 대면으로 인해 그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갖는 서열이나 권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위협만으로도 꺾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실을 발설할 경우 “너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다”든지 “아무도 네 말을 믿지 않고 너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라는 협박으로 감히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못하게끔 합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어머니를 배반했다는 죄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녀간 근친강간의 경우는 어머니의 역할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의해 고통에 시달려온 딸을 위로하고 더 이상 그러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 우선 딸의 얘기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딸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음을 확실히 인정하고, 두 사람을 격리시켜야 합니다.

공동거주라는 조건이 딸의 피해를 지속시켜온 한 요인이 되어왔으며, 계속 한 집에서 사는 한 이러한 피해는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해자인 남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존속을 고소할 수 없게 되어있으므로 이번 경우는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는 어머니가 현장을 목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면 됩니다.

그동안 딸은 아버지에 대해 분노와 적개심, 혐오감 등을 느껴 왔을 것입니다. 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어머니에게도 유사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피해자의 분노가 건강하게 표출되지 않을 경우, 그 분노는 피해자 자신에게로 향해 스스로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철저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는 건강하게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한가지 방법으로 편지쓰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딸에게는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런 행동에 의해 본인의 생활이 얼마나 방해받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편지 형식으로 적어볼 것을 권유하십시오.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간의 감정을 발산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용기를 내십시오 ■

〈상담 : 임순영〉

나눔터 알림판

최영애 대표 아시아 여성 회의에 참석키로

본 상담소 최영애 대표는 일본에서 4월2일부터 4월12일까지 열리는 아시아 여성회의에 참석, ‘한국의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아시아 20개국에서 여성단체 관련자 및 여성 학자들이 모여 각국의 여성문제를 서로 나누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과 노동, 여성의 몸, 여성과 발전 및 환경, 여성과 대중매체 등의 주제에 대한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

권혁태〈동신한의원〉원장님 교육관 대어

서초동 소재 동신한의원(원장 : 권혁태)에서 문화공간을 본상담소 교육관으로 빌려주었다. 앞으로 이곳에서 상담원 예비 여성학 교육 및 집단상담, 그리고 상담원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2월24일 현재 김우혜님이 이사로 들어왔고, 27명이 후원회원으로 새롭게 가입했습니다. 좋은 일에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

〈신규 이사〉 김우혜

〈신규후원회원 명단〉

김양래, 강정선, 김미령, 감상기, 나재은, 들국화, 박선애, 박정희, 백은주, 박혜영, 임성희, 이진숙, 이혜정, 박문희, 홍영주, 박인옥, 조소연, 최석태, 한수경, 하성아, 조하림, 이진옥, 백명희, 정옥희, 옥잉애, 송연주, 김용제 (27명)

성폭력상담소 소식지 〈나눔터〉는
계간으로 발행됩니다.

편집위원장 : 조성숙

편집위원 : 김영아, 김정희, 백은주, 신미정, 이숙진, 이영숙
이은주, 장윤경, 정경애, 정경자, 최현경

편집디자인·인쇄 : 다섯매 광고기획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상담전화 : 02)522-1040

522-1041

상담범위

강간을 비롯한 추행·성적희롱·음란전화 등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신과의사·산부인과 의사·법조인·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종류

상담은 일차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만남인 면접상담과, 내담자모임으로 이루어진 집단상담이 있습니다.

상담방법

여성이 겪는 고통과 피해를 개인의 잘못이나 불운으로 보기보다 사회환경속에서 그 원인을 찾고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또한 내담자와 상담자는 서로 평등한 관계로 만나 문제를 의논하고 극복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서 내담자 역시 상담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전화상담 :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토 오전10시~오후1시

면접상담 : 화·목, 오전10시~오후5시

집단상담 : 내담자모임이 이루어진 뒤에 시작

정신과 상담 : 화요일 오후 1시~5시(무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상담원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여성학 교육/상담원 교육)을 마치면 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여러 활동(번역, 사무보조, 자료정리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522-1042)

물품기증

상담소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사무용품 등)

후원회원

〈성폭력 상담소〉의 기본재정은 후원회비로 충당됩니다. 고통받는 피해여성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마음에서 크고 작은 정성을 모아 상담소의 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회원이 되시면 한 가족으로서 모든 상담소 활동에 참여의 기회가 열립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초청하고 본 상담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회비보내는 방법

보내고자 하는 돈을 일시불 또는 매월 분납하셔도 됩니다.

보내시는 분의 성함을 적어서 다음 은행 온라인 계좌나 지로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뒤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 온라인 계좌번호

국민은행 : 009-01-1176-632 성폭력상담소

조흥은행 : 308-01-133092 성폭력상담소

농협 : 037-01-194301 성폭력상담소

한일은행 : 015-040018-01-001 성폭력상담소

• 지로번호 : 7533156

소식지 「나눔터」를 받아보려면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1년구독료 5천원을 시중은행지로(99)창구에 납입한 후 「성폭력상담소」에 주소를 알려 주시면 계간으로 발행되는 「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